

## 나를 부르는 곳 설악산 四色비경\_곰배령(봄)

### 1. 목적 및 배경

- 계절마다 수려한 풍광과 정취를 보여주는 설악산의 자연생태를 탐방하고, 힐링체험 및 탐방원 야외 정원에서 밤하늘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생태관광( ○ ), 환경교육(    ), 상시(    ), 특화(    )
- 프로그램명 : 나를 부르는 곳 설악산 四色비경\_곰배령(봄)
- 대    상 : 가족, 일반성인
- 운영기간 : 봄
- 운영형태 : 당일형, 1박 2일
- 장    소 : 설악산 국립공원 곰배령
- 주요내용 : 곰배령 탐방, 설악산 숨은 명소 소개, 힐링 체험 프로그램, 밤빛나들이
- 소요예산 :
- 참 가 비 :

###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유선문의(월 1회 홈페이지 공지, 모집인원에 따라 운영 결정)
- 참가자 접수 방법 :
- 사업성과 홍보 :

###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서면)
- 효과성 조사 :

####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 나를부르는 곳 설악산 四色비경\_곰배령(봄)

활동장소 | 설악산국립공원 곰배령  
 소요시간 | 240~300분  
 참가대상 | 성인  
 참가인원 | 20명내외/해설사2명  
 작성자 | 자연환경해설사 양병진

**활동목표**

- 트레킹 시 현장 체험의 흥미제고
-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

**준비물**

- 구급약품, 사진자료, 개인 비상식량, 도시락

**유의사항**

- 작은 곤충이라도 헤치거나 아프게 하지 않도록 유의
-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참가자 연령대 확인으로 트레킹 코스 지정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b>도입</b>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li> <li>- 첫 만남, 곰배령 소개 및 야생화 소개</li> <li>-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li> <li>- 준비운동 하기</li> </ul> </li> </ul>	10분
<b>전개</b>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곰배령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곰배령의 유래와 위치, 특이한 자연환경 이야기</li> <li>- 곰배령의 야생화</li> </ul> </li> <li>• 야생화의 천국 곰배령 자연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강나무, 귀룽나무, 들메나무 등 나무해설</li> <li>- 갈퀴 현호색, 고려엉겅퀴, 금강애기나리, 금강초 등 한국 특산식물 야생화 해설</li> </ul> </li> <li>• 곰배령 경관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롱뇽 서식지, 화전민터, 너덜지대 등 경관해설</li> </ul> </li> <li>• 숲 놀이(대상과 해설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색깔 찾기</li> <li>- 자연물 빙고 등</li> </ul> </li> </ul>	분
<b>마무리</b>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레킹 후 느낌나누기</li> <li>• 마무리 스트레칭 하기</li> </ul>	5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천상화원이라고 불리는 곰배령이라는 곳에서 안전한 탐방과 멋지고 즐거운 해설을 진행하게 될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천상화원 곰배령을 트레킹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종의 20%인 약 854 종류의 야생화가 사시사철 피고 지는 곳입니다. 주변 경치를 감상 하시면서 이런 귀중한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과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합니다.

□ 곰배령 이란

○ 곰배령 이란 곳에 오셨으니 곰배령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령을 품고 있는 점봉산은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하고 있으며, 높이는 1424m입니다. 곰배령은 하늘에서 보이는 모습이 곰이 배를 내놓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정상부에는 나무가 없이 각종 야생화만 가득한 벌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곰배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생화의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면 1)화전민들에 의해서 베어지고 불태워진 후 농사를 지었던 곳 이거나, 2)전쟁 때문에 나무가 없어지고 추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풀만 자라게 된 것 등 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백두대간의 줄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 준비하기 (준비운동, 주의사항 이야기하기)

○ 준비운동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밤사이에 굳어진 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일상생활의 부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스트레칭 동작 진행. 해설사 1명 함께 돕기)

1. 목 스트레칭 - 앞, 뒤, 옆 목덜미 굽히기
2. 팔, 어깨 스트레칭 - 머리위로 어깨 펴기, 팔 엇갈려 당기기, 팔꿈치 잡고 팔 뒤로 당기기, 어깨 돌리기, 깍지 끼고 등 뒤로 손 뺀기
3. 허리, 배 스트레칭 - 몸 옆으로 굽히기, 서서 몸통 굽히기, 허리 돌리기
4. 다리 스트레칭 - 다리 뺀기, 무릎 돌리기, 발목 돌리기

자, 이제 끝입니다. 개운하시죠? 그럼 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우선 이 마을에 사시는 이웃 분들께 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자연보호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체력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되 몸이 불편하시거나 넘어져 다치셨다면 저희 해설사 에게 구급약이 있으니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 □ 자연 해설 및 경관 해설 (대상과 해설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

곰배령 길은 좁고 약간은 가파른 길로 이어져 있는데 많은 야생화가 피고 지고 있기

때문에 산행을 하시는 동안에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발걸음을 조심해서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옛날에는 산촌마을과 어촌마을을 연결해 주던 아주 중요한 길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으니 길도 좁아져 버렸답니다.



#### ○ 자연 해설

##### 1. 고평나무

4~5월경에 백색의 꽃이 핀다. 그냥 흰색이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흰색 꽃이 피는 청초함에 반하기도 한다. ‘오이순’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앞에서 오이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름에 빛 광(光)자가 들어 있는데, 멀리서 보아도 빛이 나는 듯 꽃이 많이 피어난다고 한다.

##### 2. 귀룽나무

습기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데 오래된 나무는 9마리의 용이 용트림을 하는 듯 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나무의 꽃은 흰색이 피는데 잎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꽃이 핀다. 예전에는 토종벌의 꿀을 얻기 위해서 귀룽나무의 가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썩 으 로 연기를 피워서 벌을 진정시키고 벌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정도의 꿀은 남기고 얻었다면, 귀룽나무는 연기를 피우면 벌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많은 량의 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귀룽나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들을 죽이는 용도로 쓰임을 당하기에 가장 일찍 꽃을 피우지만 벌들도 외면하는 나무랍니다.

##### 3. 들메나무

물푸레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무가 곧게 자라고 크게 자라기 때문에 산골에서는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4. 신갈나무

참나무류 중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나무이며, 산골에서는 중요한 나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떨감의 역할, 배고픔을 해결(도토리묵)해주는 역할, 토양의 지력을 높여주는 비료(잎)의 역할 등이 있으며, 야생동물에게는 집으로, 먹이로, 피난처로의 역할을 해내는 고마운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음나무

어린 나무는 는 가시가 많아서 쉽게 만지지 못하지만, 큰 나무는 가시가 되

화 되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잎이나 껍질을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아름드리 엄나무를 잘라서 잎을 채취하고 껍질을 벗겨가기도 하네요.

실제로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에서 집단적으로 나무가 베어진 현상이 발견 되어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 6. 갈퀴 현호색

현호색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이 갈퀴 현호색이 특별한 것은 꽃의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향기 또한 진하기 때문에 이 꽃을 본다면 꼭 한번 허리를 숙여서 향기를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 7. 고려엉겅퀴(한국특산식물)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야생화이며, 나물로써 재배가 되기도 하는 야생화이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귀중한 야생화입니다. 엉겅퀴라는 이름은 “ 엉겅퀴를 먹으면 피가 엉긴다(지혈)”라는 데서 유래 하였다. 다른 이름으로는 ‘곤드레’, ‘곤드레 나물’ 로 불리기도 합니다.

#### 8. 금강애기나리(한국특산식물)

금강산에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애기나리 중에서 꽃잎에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낮은 곳에는 애기나리가 있다면, 해발 700미터정도의 높은 곳에는 금강애기나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서식지가 다르다는 뜻이죠.

#### 9. 금강초롱(한국특산식물)

이름에 금강이 들어가는 것은 발견 장소가 금강산이기 때문입니다. 금강초롱 또한 한국 특산식물로 오빠를 찾아 금강산에 온 소녀의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피어난 꽃이라는 전설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 10. 꿩의 바람꽃

꿩이 나올법한 곳 즉, 나무가 많지 않고 숲이 많이 우거지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꽃잎을 펼치고 있는 모양이 꿩의 발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11. 도깨비부채

도깨비가 쓰는 부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을 만큼 귀한 야생화입니다. 꽃말은 ‘행복’,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꽃을 보셨으니까 꼭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 12. 동의나물

곰취처럼 보이고,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잎을 잘 못 먹게 되면 심각한 상황(중추신경계와 심장활동 억제), 생식기 기형 유발, 피부에 강력한 자극 발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식용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식물입니다.

#### 13. 모데미풀(한국특산식물)

전라북도 운봉면에는 ‘모데미’ 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재미있게도 실제로 이 마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백산에는 모데미풀 최대 군락지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귀한 존재이면서 한라산에서 설악산 까지 분포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 14. 미나리냉이

앞은 미나리처럼 생겼으며, 꽃은 냉이 꽃처럼 생겼고, 맛 또한 냉이처럼 매운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로 냇가나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균락을 이루며 흰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숲에서 쉽게 발견이 가능합니다. 삼베 짜는 삼 잎을 닮기도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불립니다.

#### 15. 미치광이풀

꽃 이름처럼 정말 미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이풀을 먹은 소는 독성이 강해서 미친 듯이 날뛰다고 한다. 사람도 먹으면 극도로 흥분해서 미친 사람같이 날뛰거나 인사불성이 된다고 한다.

미치광이풀에 포함된 성분에는 ‘스콜폴라민’ 이 있는데, 이성분을 이용한 제품에는 멀미약으로 쓰이는 [귀미테]가 있다.

이처럼 독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한다.

#### 16. 박새

봄철이면 어김없이 방송에 나오던 식물의 이름이 있는데 이 식물도 여기에 속한다.

산마늘 과 비슷하게 생긴 잎 모양 때문에 먹고 중독되어 병원에 실려 가고 방송에 나오는 식물 이다.

잘못 섭취하게 되면, 구역질,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박새의 독은 옛날에는 사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 17. 벌깨덩굴

야누스의 이중성처럼 벌깨덩굴은 자랄 때는 줄기로 자라지만 줄기가 덩굴로 변하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다시 줄기가 자란다.

자랄 때(꽃이 필 때)와 자란 뒤(꽃이 진 후)의 모습이 다른 식물이다.

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꽃에 난 수염 같은 것이 물고기인 메기처럼 보여서 꽃말이 메기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벌(벌들이 많이 와서), 깨(잎이 깎잎을 닮아서 ), 덩굴(누워서 자라서)

#### 18. 산괭의다리

설악산에서는 이 식물을 삼지구엽초라고 해서 팔았는데, 실제로는 삼지구엽초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며,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성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독초를 약초로 팔았으니 돌팔이(?)가 따로 없다.

생김새가 괭의 다리처럼 가늘게 생겼으며, 산에 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19. 속새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겨울철에는 먹이로 이용하고 있지만 , 줄기의 표면에 있는 성분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사포 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줄기를 잘라서 손톱에 문질러 보면 손톱이 갈린다.

관중과 마찬가지로 공룡시대부터 살았던 식물이다.

#### 20. 얼레지

잎의 표면에 얼룩무늬가 있어서 얼레지라고 불리 운다.

산골에서 산모가 산후에 미역국 대신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움은 하

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물에 삶아서 우려낸 후 먹었다고 한다.  
알레지는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기까지는 상당한시간이 걸리는데, 싹이 나고 한 장의 작은 잎이 크고 다시 잎이 두 장이 올라와서

꽃이 피는 시기가 6~8년이 걸린다.

봄철에는 멧돼지가 알레지의 동이 뿌리를 케어 먹기 위해 숲바닥 여기저기를 파 헤쳐 넣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21. 여로

산마늘 처럼 생겼지만 맹독성 이어서 뿌리줄기를 살충제로 사용하였다.

#### 22. 연령초

수명을 연장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멸종위기종 으로 지정 되 보호될 만큼

귀한 야생화 이다.

#### 23. 영아자(염아자)

산미나리, 미나리싹 이라고도 불리 우며, 우리나라 의 산골짜기 어디에서나 잘 비이는 야생화 이다. 꽃 모양이 짐승의 송곳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아자' 라고 불리 운다.

줄기를 잘랐을 때 하얀 즙액이 나오는데, 사포닌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

#### 24. 왜미나리아재비

야생화의 이름을 지을 때는 생김새나 약성을 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은데. [왜(일본사람을 예전에는 왜놈 이라고 불렀다(작은 키) . 미나리(잎 모양이 미나리를 닮아서) 아재비(어떤 식물과 닮았다)는 뜻 이 있다고 한다.

꽃잎에 광택이 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백부자', '투구꽃' 과 함께 사약의 재료로 사용 된 식물이다.

#### 25. 족도리풀

꽃모양이 전통혼례식에서 신부가 쓰는 족도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야생화와는 다르게 꽃이 땅에 붙어 있어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통한 수정보다는 개미가 수정을 도와주고 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생긴 뿌리는 박하 냄새가 나며, 먹으면 입안을 잠깐 동안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치통이나 입 냄새 제거에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 26. 참나물

시장에서 파는 나물 중에서 참나물 이라고 있는데, 시장에서 파는 나물은 '파드득 나물' 이라는 엄연히 다른 이름이 있다. 맛이나 생김새가 비슷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 27. 터리풀

꽃의 생김새가 먼지떨이개 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28. 투구꽃

꽃모양이 로마의 병사가 쓰던 투구의 모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약의 재료로 쓸 만큼 강력한 독 이 있다.

'각시투구꽃의 비밀' 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 29. 피나물

나물이지만 먹을 수는 없다

줄기를 꺾으면 유액이 붉게 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노란색의 꽃이 모여서 피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인다.

꽃대가 줄기에서 나오면 '피나무', 뿌리에서 바로 나오면 '매미꽃' 으로 구분한다.

### 30. 말나리

나리꽃 중에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말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이 하늘을 보고 있는 하늘말나리가 있다

### 31. 한계령풀

한계령에서 발견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겨울눈이 다 녹기도 전에 새싹을 내밀고 꽃을 피울 만큼 강인한 식물이며, 멸종위기종

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메감자' 라고도 불리는데 덩이뿌리가 감자처럼 생겼다.

### 32. 홀아비꽃대

한 개의 줄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삭도 한 개만 나오는 특징이 있다.

비슷한 종으로는 옥녀꽃대가 있는데, 옥녀꽃대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지방에서 자라고, 홀아비꽃대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다.

## ○ 도롱뇽 서식지

이곳은 물이 흘러서 다니시기에 불편 하시죠? 저는 늘 이곳을 지날 때는 발밑을 잘 살피면서 걷는 답니다. 보호색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걸음도 느려서 잘 보이지는 않고 이런 얇은 곳에도 생명이 살고 있답니다. 바로 '도롱뇽'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지금 이곳에는 도롱뇽이 알을 낳아서 자라고 있답니다. 개구리알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요. 1급수의 지표종이며, 어린 시절 1년 정도는 차가운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어른이 되어서는 차갑고 깨끗한 곳에서만 살고 있는 도롱뇽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 ○ 화전민터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까지 오셨던 곳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이곳은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깊은 산속에 에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골라서 밭을 일구어서 살아가던 곳! 바로 화전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60년대 후반정도 아니면 그 후 일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입니다.

이곳 마을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곳이 주막 터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곳 귀둔리 마을 분들과 산 너머 진동리 마을 분들이 주로 이용하셨겠죠?! 이곳 인제에는 '삼둔오갈' 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삼둔 : 살둔 . 달둔 . 월둔 오갈 : 연가리 . 적가리 . 아침가리 . 명지가리 . 곁가리) '둔'은고원지대의 평평한 땅을 가리키고 '가리'는 계곡 속 제법 넓은 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감록에는 난을 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곳 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살기 좋은 곳 같으신가요? 아마 그 시절에 사시던 분들은 난 은 피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피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마침 이곳에 쉼터가 있으니 막걸리는 못 드셔도 시원한 물 한잔 드시고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물가

이 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1급수', 먹고 싶지는 않지만 발을 담그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2급수', 발을 담글 정도의 물은 아니어도 보기에는 나쁘지 않으면 '3급수', 보기도 싫을 만큼 더러워진 물이라면 '4급수나 (?)물 이겠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물은 몇 급수 정도나 될까요? 1급수! 이곳의 물은 오염원이 없으니 맑고 깨끗하겠죠!? 실제로 이곳의 물을 찌꺼기만 걸러서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물을 더럽히는 행동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얀 꽃이 피는 이 식물은 논쟁이냉이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냉이를 상상하신다면 다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냉이의 공통적인 맛 중에 매운맛이 난답니다. 이곳의 환경처럼 차고 맑은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 ○ 너덜지대-애추(崖錐)

산 너머 진동리 와는 다른 풍경이라면 이곳처럼 바위가 많고 자갈들이 많은 것입니다. 급경사지고 바위지대가 많은 곳에서 비가 많고 날씨변화가 많아진다면 풍화작용이 심해지고 그 영향으로 암석조각들이 굴러 내려서 생긴 반원꼴 모양의 퇴적물 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빙하지역(툰드라)에서 많이 발견 되는 것을 보면 이곳 귀둔리 도 눈이 많이 오고 기후변화가 심한 곳 이라는 것이겠죠? 설악산에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북주능의 귀때기청봉 주변에 가면 산 능선이 이곳보다 더 큰 돌(애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가서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 오미자 군락

이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이 덩굴 식물 만 자라고 있네요. 나뭇잎을 살짝 들춰보면 (봄:작은 꽃, 여름:푸른 열매, 가을:붉은 열매)가 있는데 혹시 무슨 식물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 식물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똑 같은 맛이 납니다. 맨 먼저 신맛이 느껴지실 거구요, 단맛, 짠맛, 떫은맛, 그리고 짠맛 도 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미자입니다. 이렇게 햇빛이 가득 하게 비춰 주니까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었군요. 이 오미자는 참 행복한 나무 일 겁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에게 다 따먹힐 것을 알지만 지금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말입니다.

### ○ 제1 쉼터

이제 20여분 정도 올라 오셨는데,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영동과 영서에 사시는 분들이 물물교환이나 거래를 위해서 이곳(곰배령)을 넘나들며, 잠시 쉬었다 가는 주막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비록 제가 막걸리를 권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시원한 물이나 한잔 하시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 ○조릿대 개화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자연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이 나무도 일생(30~40년)에 한번만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지금 그 꽃을 피우고 있네요. 우리에게 그저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나면 조릿대는 죽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 ○ 얼음골

이곳은 골짜기의 깊이가 엄청 깊기도 하지만 앞쪽에도 골짜기가 있어서 두개의 골짜기가 합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얼음이 늦게 까지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곳이라서 얼음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랫마을(귀둔리) 분들은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모내기철(5월)에 이곳에서 얼음을 가져가서 냉콩국수를 해먹었다고 할 만큼 얼음이 늦게 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지, 올해(2020년)는 (봄) 벌써 얼음이 다 녹고 없었습니다.

### ○ 제2 쉼터

힘들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을 내시면 곰배령 정상에 올라가실 수 있으니 잠시만 쉬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동안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환경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나요? 정상 부근에 도달할 때까지 물소리가 들리고 숲이 우거져서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을 만큼 짙은 산림으로 우거져 있는 것 등이 이곳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원시림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으신가요?

### ○ 나물터

왼쪽을 보시면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서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은 멧돼지가 목욕을 하러 가끔씩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실 때는 방해(?) 하지 마시고 조용히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웃음. 농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생동물의 왕래가 많이 있는 곳이라서 국립공원에서 이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마을 분들이 봄철에 나물을 하러 이곳 높은 곳까지 올라 오셔서 움막을 짓고 불을 때서 뜯어온 나물을 삶고 말려서 가지고 내려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나물의 양도 많지만 종류도 다양하다는 이야기겠죠. 지금은 산불의 위험도 많고 재배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풍경을 보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식물의 생활상이 변하고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아쉬움이 크기도 합니다.

### ○ 정상

고생하셨습니다. 곰의 배 부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상상 하셨던 모습이 신가요? 정상에는 초본류의 야생화들이 늦게까지 피고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하늘아래 꽃밭 천상화원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생물종의 약20%정도 되는 800여종의 야생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시기에는 몇 가지 야생

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실 때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곰배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주변을 감상해 보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 ○ 정상주변 경관해설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백두대간 (단목령~점봉산) 구간의 산줄기입니다. 바로 너머가 오색지구 이구요. 멀리 보이는 곳의 높은 봉우리에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높은 산의 이곳 곰배령을 품고 있는 점봉산(14424m)이구요. 그 오른쪽이 작은 점봉산입니다. 여러분들이서 계시는 앞쪽 길은 진동리 에서 올라오는 코스이며, 이곳 곰배령 에서 잠시 머물다 원점회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른쪽 길을 따라 가시면 호랑이 코 베기라는 능선을 지나 순화코스를 이용하여 내려가는 코스가 개발 되어 있습니다.

#### □ 숲 놀이 (대상과 해설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

##### ○ 같은 색깔 찾기(봄이나 여름에 활용)

색연필 또는 색종이 등을 나누어 주고 비슷한 색의 자연물을 찾아오게 한다. 전체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비슷해도 상관없다. 자연의 색이 얼마나 다양한지 느끼게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인의 옷이나 신발과 같은 색 찾아오기를 하면 색에 대한 관찰력이 좋아진다.

#### □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곰배령의 숲길을 따라 걸으시며 경치도 구경하시고 경관에 대한 해설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는 길에도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설악산 생태탐방원을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해설사 ○○○ 이었습니다.